

1월 ■ 2월 ■ 3월 ■ 4월

2017년



거룩한 사랑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공식 간행물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지향하는 선교회와 성지

"어떤 진리도 거룩한 사랑을 반대하지 않는다"



2017년도 생명을 위한
1월 27일
3 페이지

하느님의 자비 주일 행사
4월 22-23일
6 페이지

하나 되신 성심의
여섯째 심방
10 페이지

거룩한 사랑 잡지는 년 3 회에 걸쳐 거룩한 사랑과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하는 영적 여정을 세상에 더 잘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출판됩니다. 이번 발행은 2017년도 생명을 위한 행진, 하느님 자비심의 축일 행사, 최근에 있는 거룩한 천사들의 경당 수리, 그리고 하나 되신 성심의 여섯째 심방에 대한 우리의 해설의 종말을 포함합니다.

거룩한 사랑

2017년 1월 ■ 2월 ■ 3월 ■ 4월

제4권 제 1호

그리스도교의 일치를 지향하는 선교회와 성지 - 2쪽
“어떤 진리도 거룩한 사랑을 반대하지 않는다.”

제44주년 연차 생명을 위한 행진 3쪽

하느님의 자비 축일 6쪽

거룩한 천사들의 경당 새로 단장 9쪽

영적 여정 - 제20편: 여섯째 심방 10쪽

HOLY LOVE MINISTRIES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37137 Butternut Ridge Rd.
North Ridgeville, Ohio 44039 USA

성 토마스 아퀴나스

중앙 시설: 440-327-8006

선교회 팩스: 440-327-8017

메시지 신청: 440-327-5822

기도 신청: 440-327-8039

기도 신청 이-메일: prayers@holyllove.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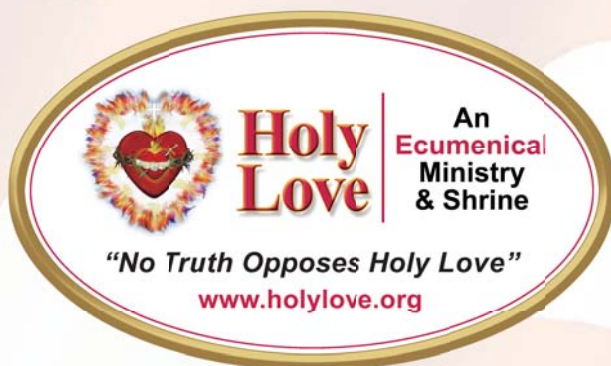
선교회 연락: mamshl@holyllove.org

자원 봉사자: volunteers@holyllove.org

체험담 제출: testimonies@holyllove.org

웹사이트: www.holyllove.org;
www.holyllovekorean.com

한국어 옮긴 이: 거룩한 사랑의 종 한인 선교회
Korean Missionary Servants of
Holy Love (KMSHL)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지향하는 선교회와 성지 “어떤 진리도 거룩한 사랑을 반대하지 않는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에큐메니컬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지향) 입니다. 이 에큐메니컬 선교회와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천국이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을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으로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부르십니다.

거룩한 사랑은 사랑의 위대한 두 계명, 곧 하느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은 아버지 하느님의 뜻, 복음 메시지의 실천, 십계명의 구현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은 목격자 모린 스위니 카일 (Maureen Sweeney-Kyle)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시현 (示現 vision), 발현, 메시지들은 1985년에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 복되신 어머니, 많은 성인 성녀들께서 거의 매일 모린 자매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들은 사랑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지향하는 에큐메니컬 (공동 기도) 운동으로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의 메시지 인용구가 이 선교회의 목적과 중심점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 선교사업의 영향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하도록 즉,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마음이 회개하도록 하고, 수많은 초자연적 은총이 충만하게 이곳에서 입증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이곳의 선교사업은 모든 세대와 나라와 이데올로기(ideologies 이념, 관념)의 회개를 가져오는 것이다.” (고통의 성모님, 2011년 9월 15일/자정 기도모임)

“이 선교회의 (기도의) 성지와 메시지들은 모든 사람들이 영감과 은총,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원천으로 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그렇게 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애정 어린 초대에 따르십시오.”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 2012년 1월 20일)

“이 선교사업의 전체적이고 완전한 동기는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거룩한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없애고, 그리하여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이 모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랑은 다양성에 빠진 마음을 다스릴 수는 없다. 온갖 종류의 관심사를 거룩한 사랑에 우선하여 두는 마음은 진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예수님, 2012년 1월 17일) ■

우리는 모든 백성과 모든 종교를 환영합니다. 기도는 보편적 언어입니다.

여기에 순례오는 모두를 기도와 천국이 이 성지에서 제공하는 평화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초대합니다.



하나 의 힘

낙태 합법화에 반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의 대통령 취임(식) 후 바로 1주일이 되는 2017년 1월 27일에 제44주년 연차 생명을 위한 행진이 워싱턴 DC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역사상 중요하고, 참석 예정인 낙태 합법화 반대 강연자들은 환호하는 대중을 격분시켰습니다. 시종 일관하여 금년의 생명을 위한 행진은 워싱턴 DC의 거리를 평화스럽게 행진하는 대규모의 군중이 함께하는 태중 생명의 보호에 대한 경의의 표시였습니다.

생명을 위한 행진은 낙태에 항의하는 연중 대회입니다. 그것은 1973년 미국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Roe v. Wade)의 재판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획기적인 결정의 기념일인 1월 22일이나 또는 가까운 날짜에 워싱턴 DC에서 개최됩니다. “모든 미국 시민에게 각 인간 인격의 생명의 아름다움과 존엄성을 증언할 공간을 제공한다”는 정해진 임무를 지닌 이 행진은 로 대 웨이드의 결정을 전복시키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위한 행진 교육과 방어 기금에 의해 주관되고 있다.

종래와 마찬가지로, 태아묵주가 워싱턴 DC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 내 전람회 센터에서 전시되었습니다. 성모님께서 1997년 10월 7일 즉, 거룩한 묵주의 기념일에 세상에 이 특별한 묵주를 낙태의 악행을 정복하기 위한 무기로서 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시현자 모린 스위니-카일에게 (오하이오 주 노스 리지빌에 위치한 마라나타 샘과 성지에서) 발현하셨으며 모린에게 그 묵주를 만들고 그런 다음 그것을 보급시키기를 요청하셨습니다. 묵주 제작이 2001년에 시작했으며 그 때부터 지금까지 태아묵주는 전 세계에 퍼져 왔습니다. 특별한 은총들이 태아 묵주기도를 바치는 사람들에게 약속되고 있습니다.

태아의 묵주기도에 참가자들은 이 생명을 위한 행진에서 얻은 그들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함께 나누었다.

- 2017년 생명을 위한 행진 -



상쾌한 - 활기찬 - 감동적인



금년의 생명을 위한 행진의 주제는 ‘하나의 힘’ 즉,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낙태 되는 아기들은 그리 할 기회가 없다” 는 관념이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태아를 위한

묵주기도의 주제 곧, ‘성모송 하나의 힘’ 일 수도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2001년 7월 2일에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애정 어린 마음으로 바치는 이 묵주기도의 각 성모송은 낙태에 의한 죽음에서 태중의 한 아기를 구출할**” 것입니다.

이 묵주로 바치는 단 한 번의 성모송이 세상 어딘가에서 틀림없이 낙태를 중지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그것이 이 대륙이거나 다른 대륙에 있던 어딘가에서 ‘**한 번의 성모송**’ 이 한 어머니의 마음을 꿰뚫고 있으며 아이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워싱턴 채류 동안에 루네상스 호텔 내에 전시회의 본거지든 또는 집결하고 기도하고 행진하기 위해 버스 한 대 만원의 임신 중절에 반대하는 학생들과 사람이 모여든 바깥 거리에 기쁨이 대기에 스며들었습니다.

전시회에서 낙태 합법을 반대하는 여러 단체로부터 약 90탁자가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대학교들, 낙태 반대 매스 미디어, 낙태 반대 법률 사무소, 낙태 반대 티셔츠, 곧 온갖 계층의 단체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탁자를 준비하기 전에 우리는 태아묵주 기상·표상을 걸기 위해 의자들 위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가까이하면서



“그 묵주들을 다시 가져 왔습니까?” 물론이지요!! “다시 오겠으니, 하나 남겨 주세요!”

사람들은 우리의 탁자에서 많은 활동들이 있다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복되신 어머니께서 사람들을 우리 탁자로 호출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탁자에는 아주 간단하게 작은 천사들로 둘러싸인 희망의 성모님상과 파란 꽃들과 태아를 위한 묵주로 전시되었습니다.

애처롭게 한 간호사가 우리 탁자에 와서 그녀는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에서 낙태 반대를 장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온라인에서 그렇게 큰 싸움이 되었고 그 간호사는 그녀가 받은 수많은 맹렬한 공격 때문에 그것에서 떠나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로 낙태 찬성 국가인 스코틀랜드에서 온 한 젊은 여자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단체는 워싱턴 DC 에 생명을 위한 행진에 참석하기 위해 수천 달러를 모았습니다. 그들은 이 생명을 위한 행진을 체험하고 무언가를 그들의 나라로 가져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낙태 반대 조직체를 얻기위해 매우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 그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나서 그 여자는 여성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아기들이 탄생하는 것 보다 더 많은 낙태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온 세 남자분들은 태아 묵주에 너무 호기심을 갖고 그것을 내려 놓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두 개의 묵주를 스위스에 가지고 가라고 그들에게 기증하는 동안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바라(Barbara)가 있었습니다. 바바라는 근위 대퇴골 부분적 결손 (PFFD)으로 알려진 희귀한 유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녀의 딸 캘리 안(Kelly Ann)에 대해 우리와 이야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질환은 골반(pelvis), 좌골(hip bone), 대퇴골(femur)에 영향을 끼칩니다. 엉덩이가 기형이되고 다리가 짧아져서 다리를 절단하는 결과에 이릅니다. 바바라가 유전자 검사의 결과를 석 달을 기다렸을 때 유전학자가 바바라가 임신 동안에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지를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그랬다’

고 대답했을 때 그 유전학자는 만약 초음파가 그 때에 고주파 (높은 빈도) 였다면, 그녀는 아기를 낙태시킬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바바라에게 말했습니다. 바바라는 그것이 어제 일어났던 것처럼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2016년 9월에 캘리안 알렌(Allen)은 2016년도 리오에서의 장애인 카누경기 경기가 새로 등장하는 세계 장애인 올림픽 게임에서 경쟁했습니다. 캘리와 두 팀 동료는 미국을 대표하는 첫째 운동 선수들이 됨으로써 장애인 카약 경기 역사에 남을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전시장에서 첫 날 저녁 때까지 태아를 위한 5단 목주와 짧은 목주 모두가 나갔습니다. 그것들과 함께 **‘하나의 성모송의 힘’**을 스코틀랜드와 스위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가져가고 미래의 언젠가는 근위 대퇴골 부분적 결손

PFFD의 질병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한 어린애를 아마도 구제할 것입니다.

워싱턴 DC 몰 (mall, 국회 의사당에서 워싱턴 기념탑까지의 넓은 녹지대)에서의 대회에서 낙태 합법화를 반대하는 연설자들 중에는 군중을 열광시켰던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 대통령의 고문 켈리안 콘웨이(Kellyanne Conway), 그리고 뉴욕의 티모티 돌란(Timothy Dolan) 추기경이 포함되었습니다. 마침내 백악관에서 누군가가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생명을 위한 행진에 참석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기력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낙태 합법화를 반대하는 이 행정부가 낙태를 중지시키고 생명을 위한 행진의 필요성을 끝내게 하는 **‘하나의 힘’**이 될 것입니다. ■



2017년 1월 25일 -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흘린 각 눈물 방울마다 다 이제 곧 낙태의 제대 위에서 살해될 태아를 그 안에 지니고 있다. 어느 태아라도 모든 잠재력은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꽃을 피우거나 아니면 태아와 함께 죽어 없어진다. 이것이 합법적 낙태의 종식이 세상의 미래를 변경할 것이라고 내가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이유다.”

“지금까지 뛰어난 세계 지도자들이 되었을 많은 아기들이 낙태되어 왔다. 오늘날 널리 퍼진 많은 질병들에 대한 치료법을 발견했을 훌륭한 과학자들이 세상에서 그들의 첫 번 숨이 주어지지 않았다. 확실하게 전통을 옹호했을 종교 지도자들 또한 낙태되었다.”

“너희는 내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그리고 왜 각 눈물 방울이 태아를 감싸고 있는지 알 것이다.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하여라. 나와 함께 기도해라. 이것은 다른 어떤 싸움과도 다른 싸움이다.”

www.RosaryOfTheUnborn.com



손가락 목주

태아를 위한 짧은 목주



확대하여 본 목주알



태아를 위한 큰 목주



To order, call 440-327-4532 or order online.
Archangel Gabriel Enterprises Inc.

주문 전화 440-327-4532 혹은 온라인 주문
가격: 큰 목주 - \$29.95, 태아를 위한 짧은 목주 - \$14.95

하느님 자비의 축일

공 고

“내 아드님께서는 또다시 하느님의 자비 축일 오후 3시에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별판에 발현하실 것이다. 나는 너희 각자가 갈라지게하고 분열시키는 차이점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공동선에 기대하면서 거룩한 사랑 안에서 일치된 마음으로 오기를 초대한다. 한 마음과 한 정신이 되어라. 거룩한 사랑 안에서의 일치는 하느님께로 이끌기 때문이다.”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 2017년 2월 4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 오후 3시 기도 모임

(이 메시지는 며칠 동안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자비심의 성화상의 모습으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의 신성한 자비의 축일을 나와 함께 기념해 주어서 고맙다. 너희를 사탄의 장악에서 구출하는 나의 자비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내 자비가 그것의 창조주로부터의 분리에 그렇게 열중되고 있는 세상에서 인정되고 존중받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너희 주변의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지금 이 순간의 일부시다. 아무것도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 밖에서 존재하거나 일어날 수 없다. 그분의 뜻은 모든 은총, 모든 자비, 모든 사랑이시다. 세상의 마음을 압박하는

이 혼란의 시대에 나는 내 아버지의 뜻에 대한 신심을 확립하기를 원한다. 내 신성한 자비에 경의를 표하는 축일을 갖는 것처럼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의 축일을 제정하여라. 아버지 하느님의 기념일인 매년 8월 첫째 일요일[2017년에는 8월 6일]에 이 축일을 경축하여라. 나는 기존 교회가 신앙의 수호자 축일[1월 21일]이나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 축일[5월 5일]에 대해 처리했던 것 보다 더 이상으로 이것을 인정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귀를 기울일 사람들에게 이 축일에 경의를 표하기를 청한다.”

“이 선교사업은 내 아버지의 뜻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을 통과하는 여정은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뜻에 잠김으로 이끄는 여정이다. 거룩한 사랑은 하느님의 뜻이다. 정녕 나의 요청은 이 선교사업과 관련이 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전능하시고 완벽하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 선택들을 면밀히 지켜보시지만 결코 인류의 자유의지를 제거하지 않으실 것이다. 선을 우선하여



오후 3시 기도모임



행렬



하나 되신 성



하나 되신 성심의 별판 성지에서 오후3시 기도모임



하나 되신 성심의 성지



오후 3시 신성한

- 2017년 4월 23일



악을 선택하고 이 잘못된 선택들을 세상에서 악의 원인으로 보지 않는 것은 자유의지다. 사탄은 성공적으로 선과 악의 차이를 흐리게 하고 있다. 그 결과는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혼란 상태다. 자유의지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될 때 온갖 종류의 방탕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내 아버지께서 자유의지에 의한 사악한 선택들을 허락하신다고 해서 그분께서 그 선택들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인간에게 그의 선택들을 허락하시지만 또한 당신의 정의(심판)를 내리신다. 너희가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을 존중한다면 너희는 또한 그분의 신성한 정의(심판)도 존중해야 한다. 너희의 선택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지 마라.”

“세상의 희망은 세상의 마음의 회개를 위해 봉헌되는 모든 기도 안에 있다.”

“거룩한 사랑은 언제나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의 한 부분이 되어 왔다. 이제 거룩한 사랑은 요즈음 내 신성한 자비의 한 부분이고 사람들을 더 깊은 개인의 거룩함과 내 아버지의 뜻과

일치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내 자비에 의지하는 사람은 또한 내 아버지의 뜻에, 그리고 역시 거룩한 사랑에 의지한다. 거룩한 사랑과 내 아버지의 뜻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함께 끌어들이는 것을 어부의 그물처럼 실행에 옮기는 것은 내 자비다. 내 자비 없이는 너희는 거룩한 사랑에 끌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나는 거룩한 사랑을 통해 사람들을 내 아버지의 뜻으로 이끌어 들이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내 자비의 과업이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내 부름이다. 이 부름을 받아들임 안에 너희의 내맡김이 있다.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한 내 아버지의 뜻이다. 너희가 지금 이 순간이 제공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너희는 그분의 신성한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너희는 그분의 신성한 뜻에 내맡기는 것이다.”

“오늘 너희가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 봄철이 가져온 모든 변화를 보는 것과 같이 내 신성한 자비가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또한 주목하여라. 내 자비를 통해 영혼들은 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순수하고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게 된다. 절대로 죄책감에서 좌절하지 말고 내 자비 안에서 용기를 얻어라.”

“내 형제자매들아, 오늘 나는 너희 각자를 내 자비로운 성심으로 초대한다. 내 은총을 기대하고 내 자비 안에서 강해져라. 나는 너희가 지금은 특별한 시대이며 특별한 은총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나는 오늘 너희의 모든 청원들을 내 자비로운 성심 안으로 가져가며 내 신성한 사랑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

성심의 성지



행렬



자정 기도모임

장미 예식 - 신성한 사랑의 자녀회



오후 3시 장미 예식 - 신성한 사랑의 자녀회

자정 기도모임



거룩한 사랑 잡지 | 7



하느님 자비심의 축일 행사에서
십자가의 길에 들어가는 순례객들 위에 내려 비치는
무지개 빛갈의 광선의 비상한 사진.

- 행사 안내 -

하나 되신 성심의 축일

2017년 6월 25일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어려운 시기에 거룩한 사랑에
너희의 내맡김으로 하느님의
신성한 뜻에 맡김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아주 열심히
노력하여라. 거룩한 사랑에
너희의 응답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더 아버지의 신성한 뜻에
내맡김이 깊어진다. 이 둘은
하나다.”

“한 행사 (공적 발현)가
끝난 후에 계속해서 떠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룩한
사랑에 대한 너희의 헌신을
깊게하는 도전이다. 예수님과
나는 너희를 돕고 너희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

“오늘 나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예수님과
내가 또다시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을 기념하는 우리의
축일(2017년 6월 25일)에
하나 되신 성심의 별판에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린다. 우리는
오후 3시 묵주기도 모임에
참여할 사람들을 환영하기를
고대한다.” ■

(2017년 4월 25일)

거룩한 천사들의 경당 새 단장을 받습니다

마라나타 샘과 성지에 있는 거룩한 천사들의 경당은 순례객들에게 오랫동안 인기있는 경당입니다. 최근에 순례자들이 제출해 온 많은 영감을 주는 증언들이 벽에 전시되는 더 좋은 경당으로 개조되었습니다.



경당 내 성상 - 성 피에트렐치나의 비오

“증언의 경당에는 증언 체험담들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고무시키는 천사가 한 명 배치되어 있다.”
복되신 어머니 - 2009년 8월 2일

증언 - 치료된 무릎

나는 5년 전에 카펫(carpet, 융단)을 까른 계단에서 비틀리면서 오른쪽 무릎을 다쳤습니다. 관절의 반월판(meniscus)에 부분적인 갈라진 틈 진단을 받았습니다.

미니스커스(meniscus, 관절의 반월판)은 무릎관절을 쿠션(cushions)으로 충격을 흡수시키는 부드러운 연골·물렁뼈의 고무처럼 탄력이 있는 C 자 형태를 이루는 납작한 원형의 조직입니다. 각 무릎에는 두 개의 반월판이 있습니다. 무릎의 바깥쪽 모서리에 하나 그리고 안쪽 모서리에 하나가 있습니다. 반월판들은 무릎을 가로질러서 무릎을 균형잡으면서 무릎을 안정되게 유지합니다. 찢어진 반월판은 무릎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찢어진 반월판의 증상은 무릎 통증, 부풀기, 펄 소리가 남, 그리고 무릎꺾임입니다.

나는 허리에 초기 장애 후에 지팡이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윽고 실제로는 무릎을 위해 필요했습니다. 2014년까지 나는 거의 오른쪽 무릎으로는 걸을 수 없었고 전혀 무릎을 꿇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전체 무릎 관절 교체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2017년 4월 23일 하느님 자비심 주일에 기도모임

네 시간 전에 거룩한 사랑(의 성지)에 왔습니다. 나는 마라나타 샘의 물로 오른쪽 무릎에 튀겨서 적시였습니다. 내가 하나 되신 성심의 (벌판) 성지 언덕을 올랐을 때, 나는 각 성상 앞에서 예수님과 복되신 어머니의 발에 입만춤을 위해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다.

묵주기도 중에 모두가 무릎을 꿇으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나는 다시 양쪽 무릎을 꿇었으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일어났을 때 나는 다르게 느꼈지만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하느님 자비심의 주일 후에 나는 더 이상 나의 지팡이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바깥쪽 무릎에 통증이 없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날이 춥거나 비가 내릴 때 통증이 심해서 우는데 그 주에는 전혀 통증이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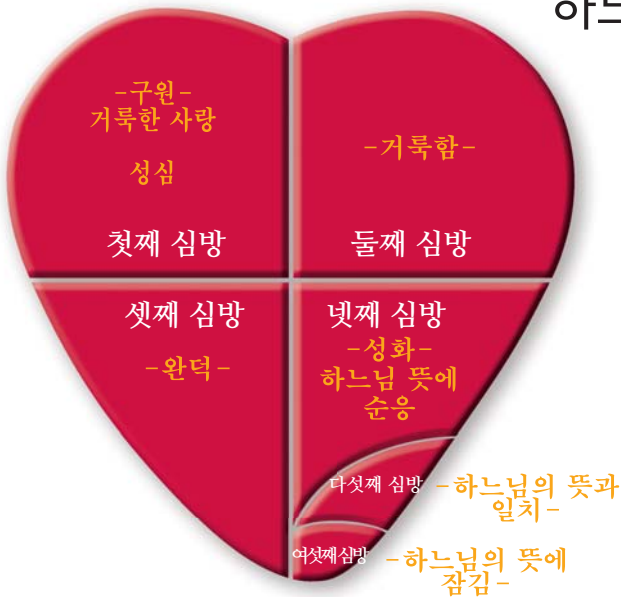
나는 장애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무릎의 통증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는 나의 옛 상사에 요청하여 매우 힘든 직장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잘 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군왕이신 예수님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

E.M.

오하이오주, 레이크우드

제20편 - 영적 여정

하나 되신 성심의 여섯째 심방: 하느님의 뜻에 잠김 (제2부)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한 영적 여정”의 이 논문 시리즈의 **제19편**에서 **하나 되신 성심의 여섯째**이며 최후의 심방이 소개되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자유의지와 하느님의 뜻과의 관계에 관해서 **다섯째와 여섯째 심방들** 사이에 구별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섯째 심방에 있거나 그 안에서의 삶에 대한 영혼의 체험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가장 높은 천국**을 성취하는 것으로서 서술했던 것임을 더욱이 배웠습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성부 성심**이나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잠기는 것으로서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 되신 성심의 여섯째 심방에 속하는 영혼의 체험에 대한 이 설명에 근거하여 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영혼들이 지극히 심오한 가장 높은 천국에 도달할 때, 그들의 신분은 영원하신 성부의 성심에 관련하여 무엇입니까?” 소책자 ‘**하나 되신 예수 마리아 성심의 계시: 비밀들이 밝혀짐 (제2판)**’에서 이 질문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에 의해 해명되었습니다. 그 성인께서 **2005년 1월 28일**에 주어진 메시지에서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심방**, 곧 하느님의 성심을 검토합니다. 이 심방에서 하느님의 성심이 영혼 안에 현존하십니다. 그러면 영혼은 하느님의 뜻이 거하는 감실이 됩니다. 이러한 영혼은 언제나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만에 대한 유혹을 극복하여, 교만이 빚어내는 성급함, 탐욕, 분노, 그리고 모든 종류의 방탕을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혼은 매 순간마다 그리고 숨쉬 때마다 하느님의 성심 안에 실재합니다. 그는 하느님께만 간청하기 위해 그리고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삽니다.”

“이 경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은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과 하나 되신 성심의 다른 성인들이 **가장 높은 천국**의 이 가장 심오한 심방에 도달하려고 분투하는 영혼들에게 주고 있는 격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07년 4월 7일**에 주어진 한 메시지에서 아버지 하느님께서 **아버지로서의 자애**를 드러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을 통한 여정**은 내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내 신성한 뜻에 이르는 통로다. 나는 인류가 이 최종 목적지를 도달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제는 지금 이 순간에 각 영혼은 이 **여섯째 심방**, 곧 하느님 뜻에 잠김으로 옮겨지는 전진과 수단을 갖춘다.

이것은 사실이다!”

“내가 모든 것을 그의 자녀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한 아버지의 부드럽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부른다는 것을 이해하여라. 그리고 나서 지체 없이 오너라.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더 사랑하고, 모든 것에서 나를 기쁘게 하려는 욕망을 가져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또한 **2007년 4월 8일 부활제의 아침**에 주신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나는 이 선교사업과 이 메시지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과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에 이르는 관문을 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라. 이것은 하느님의 신성한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래 기다렸던 은총의 통로다.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을 통하여 너희는 내 아버지의 뜻에 순응에서 살기 시작한다.”

실로 많은 은총이 가능한 한 많은 영혼들이 모두에게 제공되는 **가장 높은 천국인 여섯째 심방**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영혼들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 이 선교 사업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7년 4월 8일**의 같은 메시지에서 슬퍼하셨습니다.

“실로 하느님의 뜻의 영원한 불꽃 (**여섯째 심방**)에 잠기는 영혼은 거의 없다. 그러나 너무나 극소수의 영혼이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것이 나를 슬프게 한다. 지금 네가 내 상처로부터 나오는 빛을 보는 것처럼, 참으로 이 선교사업은 영혼을

십자가로부터 구출하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를 반영하면서 이 빛을 세상에 반사한다.”

“이 세상과 그것의 매혹이 아니고 영원하신 현재를 위하여 살라. 너희의 생명은 이 세상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기다리는 천국에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제공하시며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하는 개인의 거룩함을 위한 영적 여정”** 논문 이 전체 시리즈의 궁극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매우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영혼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천국(여섯째 심방)**을, 따라서 천국에서 하느님과 완전한 일치(잠김)와 영원한 행복(기쁨)을 성취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2007년 5월 5일**,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님의 축일 10주년에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에게 주는 상세하고 긴 월에 메시지에서 강조되었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느님께서 각 영혼의 구원에 대한 특정한 이유로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해하면서, 이승에서 너희 존재는 각 영혼이 애써서 그의 구원을 성취하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라.”

“나는 내 어머니께서 너희의 가장 큰 결점들을 정화시키고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시도록, 그분을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로서 너희 가운데로 가시게 하였다. 나는 너희를 내 아버지의 성심과 그분의 신성한 뜻으로 인도하기 위해 신성한 사랑으로서 너희에게 온다. 너희는 정의가 이기고 내 승리가 도착하기 전에 끝나야 할 은총과 자비의 연장된 시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할당해 오신 이 귀중한 순간들을 낭비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에 너희 자신의 개인의

거룩함이 너희의 우선이 되도록 마음을 써라. 아무 부귀나 권력이나 평판이 내세로 너희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애착을 뒤에 남기고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진리를 받아들여라.”

“높은 직함이나 큰 은행 예금 계좌, 영향력 있는 친구들이 너희가 천국을 얻게 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지 마라.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애착은 기껏해야 너희가 연옥에 오래 머물게 할 뿐이다. 너희가 연옥이나 지옥을 믿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것의 실재를 결정하지 않는다. 너희가 진리 즉, 신앙의 진리,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진리에 노출하고, 이 진리들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이 너희의 판단을 입증할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을 비난하거나 진리안에 사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선이나 악에 대항하기로 결정하는 그 영혼 자신이다.”

“진리안에서의 삶에서 너희를 끌어내는 것 즉, 지나친 이기심은 언제나 같은 악이다. 그 같은 이기심은 다양한 형태 즉, 야망, 지식적인 자만심, 감각적임, 허영심, 권력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입고 온다. 그러나 사탄은 이런 것들로 가장하여 무질서한 이기심으로 흥미를 끈다.”

“나는 오늘 또다시 너희를 진리와 이 시간의 세상에서 너희 존재의 현실로 돌아가기를 부르기 위해 왔다. 현세의 삶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자신이 천국에서 가장 높은 곳, 곧 하느님의 뜻에 잠김인 **여섯째 심방**을 확보하면서 내세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를 불러 일으키기 위해 왔다. 이것은 너희가 집중시켜야 할 현실이고 진리다. 그밖에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린다.”

여섯째 심방, 곧 하느님의 뜻에 잠김의 이 궁극의 목적을 성취함에서 영혼은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하는** 그의 영적 여정이 끝납니다. 이 목적은 모든 인간 즉, 지상의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을 위한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한 영적 여정”의 이 논문 시리즈의 끝에 가까워짐에 따라 우리는 꾸준히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거쳐 더 깊이 진척함에서 영혼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대한 중요성을 간단히 재검토하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릅니다. 심방들로 더 깊이 진전하려는 욕망을 제공하는 동기 부여나 자극과 함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은 하느님의 뜻과 일치와 하느님의 뜻에 잠김입니다.

2008년 10월 17일에 있었던 금요 묵주기도 모임 중에 받은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자매들아, 오직 자유의지의 여권을 통해서만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이 영혼에게 열린다. 비슷한 방법으로, 영혼이 심방으로 들어가는 깊이를 결정하는 것은 자유의지다. 만약 너희가 이 신성한 심방들 안으로 깊이, 심지어 **여섯째 심방**까지도 깊이 들어갈 의사가 있다면, 그것은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명백히 영혼은 그의 자유 의지로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해서 개인의 거룩함에 이르는 이 여정을 따라 더 깊이 들어가기로 자유로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선 여정을 떠나려는 타고난 욕망이나 추진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 4월 28일**에 복되신 어머니께서 주셨던 한 메시지에서 선두에 가져 왔습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여정은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다. 영적 여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영적 여정은 영혼이 그의 옛날 방식에서 벗어나고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하여 앞으로 나아가려고 결심할 때 시작된다. 그의 목적지는 **여섯째 심방** 즉, 하느님의 뜻에 잠김이다.”

“영혼은 무질서한 이기심, 용서하지 못함, 신뢰 부족과 같은 개인의 모든 수화물을 남기고 가기를 요청 받는다. 영혼은 오직 하느님에 대한 사랑 (그의 지팡이)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의 샌들 가죽신) 만 가지고 갈 것을 요청 받는다. 거룩한 사랑인 이 두 가지 사랑은 영혼을 도와서 어떤 장애물도 피하게 하고, 원수가 숨어서 기다리는 경우에 쉽사리 그자를 알아보게 한다.”

“오늘날 문제는 영혼들이 거룩함을 추구할만한 가치가 있는 여정으로 보지 않는다. 만약 영혼이 이 영적 여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절대로 틀림없이 이 여정을 끝낼 수 없다.”

“오늘 나는 너희의 기도가 영혼들이 그들의 삶의 목표를 재평가하도록 간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란다. 이 영적 여정을 반대하는 어떤 목표도 가치가 없으며 기껏해야 일시적이다.”

“영혼들이 오기를 거절하면 나는 그들을 나의 티없는 성심 안으로 끌어들이 수 없다. 이 점에서 너희의 기도가 변화를 가져온다. 기도는 자유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의지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이 점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해서 **여섯째 심방**에 이르는 궁극의 목표를 향한 개인의 거룩함에 이르는 여정을 따르는 영혼의 자유의지 선택은 매 현순간에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임과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께서 그분의 축일인 **2017년 1월 28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밝혀졌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그 성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되신 성심의 **여섯째 심방**은 하느님의 신성한 뜻에 완전한 잠김입니다. 이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의 결정하시는 뜻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습니다. 즉 영혼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 하느님의 결정으로서 받아들입니다. 이 내맡김은 신뢰 그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깊은 겸손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방법을 계속 고집하는 영혼은 하느님의 결정하시는 뜻에 내맡기고 있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각 영혼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 그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선택하십니다. 흔히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영혼이 십자가에 협력하면, 그 십자가는 영혼을 하나 되신 성심 안으로 더 가까이, 더 깊이 이르게 합니다.”

“겸손하게,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대신 결정하시게 하십시오. 성모님과 천사들에게 (하느님의 결정을) 받아들임의 은총을 청하십시오.”

여섯째 심방에 도달하고 머물기 위해서 매 현 순간마다 영혼을 위한 하느님의 결정하는 뜻을 깊은 겸손으로 충분히 받아들이는 영혼의 영적인 동기와 욕망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에서)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하나 된 사랑**이라고 부르시는 그 은총은 존재하는 가장 높고 가장 순수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하나 된 사랑**의 개념과 그것의 **여섯째 심방**, 곧 **영원하신 성부의 성심**과의 관계는 **“하나 된 사랑: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에서 완덕.”**이라는 제목의 다음 논문에서 자세히 탐구되고 논의될 것입니다. ■

(제 21 편에서 계속)

계속 여행을 하여라 ...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 형제자매들아,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성상을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의 시각의 표현으로 받아들여라. 이것을 너희에게 알리고 이 성상을 너희에게 주시기 위해 나를 보내신 분은 아버지 하느님이시다.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거룩한 심방들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일치와 잠김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영혼을 인도한다. 필요한 모든 것은 영혼의 ‘예’라는 대답이다. 이 ‘예’라는 대답은 우리의 하나 된 성심에 내맡김이다. 너희의 내맡김은 요즘의 악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한다.”

“너희는 용기와 거룩한 담대함으로 이 길을, 곧 이 내맡김을 기꺼이 선택하기를 결심해야 한다. 그와 같이 하지 않는 것은 잇따르는 은총을 물리치는 것이다. 요즘 많은 은총이 거절된다.”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이 계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악에서 선을 분간할 수 없고 대부분이 그렇게하기를 선택하지 않는 이 불안정한 시대에 지상에 내리는 천국의 개입이다. 너희는 어디에 너희의 노력을 들여야 하는지를 상기시켜주는 메모로서 심방들을 통하는 여정을 매일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2017년 3월 12일)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이 메시지들을 통해서 받는 여정을 부디 마음에 새겨라. 그것은 다른 시현자·목격증인들에게 주어진 다른 모든 메시지들에 연결 고리다. 다른 많은 메시지들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의 삶을 다루는 반면에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을 통과하는 여정은 너희에게 하느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제공한다. 너희는 먼저 그 여행을 하지 않고 어떤 목적지에도 도달할 수 없다.”

“이것은 세련된 여정이 아니라 마음의 순수함과 사람의 결점에 대한 내적인 고백을 받아들이는 여정이다. 절대로 너희가 어떤 심방에 있다고 추정하지 말고 계속 여행을 하여라.” (2017년 5월 10일)